'사면초가' 문창극, 결국 낙마하나

〈국무총리 후보자〉

역사인식 발언 파문 확산…여당 내서도 발끈

야권 '최대 인사 참사' 규정…지명 철회 투쟁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일제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 등 근현대사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일련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등 여권 내에서도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청와대는 당혹감 속에 추가폭로가 이어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일제히 지명 철회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발언=문 후보자는 지난 2011년 강연에서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라며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희는 이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는 시련이 필요하다"며 식민지배의 당위론을 주장했다. 같은 강연에서 문 후보자는 남북 분단에 대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듬해 강연에서는 제주 4·3 민주항쟁을 '폭동'으로 규정했다. 또 "조선민족의 상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거야.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것 이게 우리 민족의 DNA로 남아있었던 거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도 발끈=새누리당은 불안감 속에 상황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우리가 좀 잘해보자,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 민족이 더 잘하자'는 뜻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말 몇 마디를 갖고 그의 삶을 재단하고 생각을 규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초선 의원 6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후보자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면서 "인사검증에 실패한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손질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문헌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최대의 인사 참사'로 규정=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일본 극우 교과서보다 더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 발언이다"며 "이번 인사는 건국 이래 최대의 인사참사"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께서 문 후보자의 입장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면 더는 국민 마음에 상처주지 말고 인사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국무총리 내정자의 친일 반민족적 역사관·국가관이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트위터에서 "총리감은커녕 국민감도 못 되는 사람이니 청와대 수석 인사로 넘기려 하지 말고 빨리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출신 새정치연합 강창일·김우남·김재윤·장하나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 "문 후보자가 4·3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망언을 한 것은 자질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역사정의실천연대와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가 된 발언들은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망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군국주의자들이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 펴는 논리"라며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국회 통일특위 구성…5대 新사회위험 해결해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촉구와 함께 국회 내의 통일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찾아야 할 때이며, 남과 북이 화합하면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및 민간 부문의 교류 협력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도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할 때가 됐다"며 특위 구성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과거 진보진영의 담론이었던 남북 화해 및 통일 어젠다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발언 동영상 파문과 관련해서는 "문 후보자는 '일제 식민지배와 남북분단도 하나님의 뜻', '4·3 사건은 폭동'이라고 말했다"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내정자인지 일제 조선총독부의 관헌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반쪽 지지자만 갖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반쪽 대통령'이 되지 말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국가 운영기조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탐욕과 규제완화'를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꼽은 뒤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19대 후반기 국회의 첫 과제로 제시하며 '성역없는 조사'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후불안·주거불안·청년실업·출산보육·근로빈곤 등을 '5대 신(新)사회위험'으로 규정, 이를 풀기 위해 여·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의화 국회의장 취임 후 첫 광주 방문

내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정의화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지방 방문지로 광주를 선택,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12일 국회와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정 의장은 14일 오전 9시30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이날 참배에는 정춘식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과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양희승 5·18 구속부상자회장, 오재일 5·18 기념재단 이사장 등 5월 단체 대표와 국회사무처 주요 간부가 함께한다.

정 의장은 참배에 앞서 5·18 관련 단체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5월 단체장들은 정 의장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경남 창원 출신인 정 의장은 부산 중·동구 5선 의원으로 2008년 한나라당 지역화합특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영호남 화합과 교류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 최초로 광주 명예시민에 추대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와대 신임 수석 4명 프로필

박대통령 패션·어투까지 속속 꿰뚫는 '신친박'

조윤선 정무수석

박근혜 대통령이 당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2012년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줄곧 보좌한 '신(新) 친박' 여성 정치인이다. 대선 후보 시절 박 대통령의 패션은 물론 어투까지 속속들이 꿰었으며, '그림자 수행'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현 정부 1기 내각에 참여했다. ▲서울(48) ▲서울대 외교학과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씨티은행 법무본부장(부행장) ▲여성가족부 장관

현정부 기초연금 도입 등 선굵은 정책 과제 입안

안종범 경제수석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의 산파역을 한 경제학자 출신의 정책통 초선 의원이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시절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으로 꼽히는 기초연금 도입 등 선굵은 정책 과제가 안 내정자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을 지냈다. ▲대구(55) ▲대구 계성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업무장악 능력 탁월…개성 강해 호불호 갈려

김영한 민정수석

검사장 출신으로 시원시원한 성격에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며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판세를 읽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과 장악력이 우수하며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할 말을 하는 타입이라는 평이 많다. 다만 개성이 강해 선후배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린다.

▲경북 의성(57) ▲경북고·연세대 ▲사법시험 24회 ▲광주지검 검사 ▲대검 강력부장

서울교육대 총장 출신 정수장학회 이사 맡기도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서울대 사범대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서울교육대 총장을 지낸 정통 교육 전문가다. 1976년 성일중 교사로 출발해 1984년부터 서울교육대 초등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때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 이사를 작년 초까지 13년간 맡았다. ▲충남 보령(61) ▲대전고 ▲서울대 사범대학 대학원 교육학과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자문위원 ▲서울교육대 총장

/박진표기자 lucky@

2014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1. 전형일정

① 원 서 접 수 : 2014. 6. 13(금) ~ 6. 20(금)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② 전 형 일 : 2014. 6. 26(목) 오후 3:00
※ 필기시험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음악학과(M.A.)
③ 합격자발표 : 2014. 6. 30(월) 오전 10:00 ④ 등록기간 : 2014. 7. 1(화) ~ 7. 4(금)

2. 모집학과 및 인원 : 56명

대 학 원	학위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 학 과 (신학석사 Master of Theology;Th.M.)	9
		신학연구학과 (문학석사 Master of Arts in Theology;M.A.T.)	4
		유아교육학과 (교육학석사 Master of Education;M.Ed.)	1
		음 악 학 과 (음악학석사 Master of Arts in Music;M.A.)	3
신학대학원	석사	신 학 과 (목회학석사 Master of Divinity;M.Div.)	22
교육대학원	석사	교 육 학 과 (교육학석사 Master of Education;M.Ed.)	16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 (교육학석사 Master of Education;M.Ed.)	1
합 계			56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 신 대 학 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